

개학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 안전 강화

유정기 부교육감, 전주여고 현장 점검

이달 말까지 전 기관 자체 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지난 7일 전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등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냉방·환기시설 운영 상태와 냉수 제공 여건, 휴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폭염 대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유 부교육감은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식염포도당과 이온음료, 선풍기 등을 전달하고 현업업무종사자들에게 폭염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같은 날 교육지원청 산업안전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폭염 대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8일까지 도내 712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자체 점검을 완료하는 등 개학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폭염기 안전관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7일 전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등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냉방·환기시설 운영 상태와 냉수 제공 여건, 휴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폭염 대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기전대, 몽골 대학과

치유농업 국제협력 확대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와 RISE사업단이 몽골 주요 대학 및 경제특구와 손잡고 치유농업 분야의 국제 교육협력과 공동 연구 확대에 나섰다.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와 RISE사업단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국제물리비타르대학교와 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교(MULS) 등 현지 대학과 치유농업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몽골 아그로시티경제특구와 후속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스마트농업 기술, 지역 기반 치유산업을 연계하는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육·산학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과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추진된 가운데 천호성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청렴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청렴, 우리가 만드는 변화’… 도내 교직원 청렴의식 제고

전북교육청, ‘2026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군산·익산권역을 시작으로 정읍·부안·고창·남원·장수·임실·순창·전주·완주·김제·무주·진안 등 5개 권역에서 교직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청렴, 우리가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통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 ‘조선팝 라이브’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져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며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윤미 청렴강사가 진행했으며, 참여형 갑질·을질 예방 교육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교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변화하는 공직사회에 맞

는 청렴문화와 반부패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했다. 교육 마지막 일정인 6일과 7일에는 천호성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청렴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육갑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청렴 실천을 다졌고, 지위와 직급에 관계없이 공정한 갑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대상 위생교육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5일 정읍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위생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정읍 지역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갑질 근절 및 예방법 등 청렴교육과 함께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 검수요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실효성 높은 실무 중심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해 급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교과서 교실 배송 지원… 교사 업무부담 덜다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37개 초교에 운반까지 지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과서 분배 업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사의 교과서 배부 업무를 줄이고 교과서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서 분배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주문 수량에 맞춰 교과서를 발주·계약해 학교까지 일괄 납품하는 역할만 담당했다. 이후 검수와 학년·학급별 분류, 교실 운반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해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수만 권의 교과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기존 공급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과서 검수와 분류, 교실 운반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교과서를 직접 학년과 학급별로 분류하고 각 교실까지 운반하며 재고 수량까지 확인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시범사업은 2학기 교과서 배부를 앞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37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은 신청한 모든 학교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장은 “방학마다 트럭으로 도착한 교과서를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나눌지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지원 덕분에 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새 학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지원 대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상근기자

도교육청, 9월 1일자 정기인사 단행

교육국장에 최지윤 군산월명중 교장… 이강자 전주교육장

주중일 군산교육장·정영수 익산교육장 등 총 570명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2026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교육국장에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70명 규모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교원(원)장 44명, 교(원)감 52명, 장년·병예퇴직 235명을 포함해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417명과 교사 153명 등 모두 5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 교육국장에는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이 임명됐다. 지역 교육행정을 이끌 교육장에는 전주교육장 이강자, 군산교육장 주중일, 익산교육장 정영수, 정읍교육장 오문환, 무주교육장 이정수, 장수교육장 사창현, 완주교육장 황수지, 순창교육장 허인석, 고창교육장 김낙훈이 각각 발령됐다.

도교육청 주요 부서장에는 정책기획과장 정태식, 교원인사과장 김항윤, 중등교육과장 임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우,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김진덕이 임명됐다.

직속기관장에는 미래교육연구원장 김동명, 과학교육원장 이강남,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희가 각각 발령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지난 7월 취임한 천호성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전문성과



최지윤

이강자



주중일

정영수

현장 소통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인권 보호관 구축과 기초학력 책임제, 함께하는 도전학교 등 핵심 교육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해 전북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AI+X’ 고급인재 집중 육성

전북대, 7개 융합학과·정원 150명 규모 연구중심 교육 기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 성장엔진 분야를 이끌 석·박사급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 7개 융합학과, 정원 150명 규모의 연구중심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AI와 미래산업을 접목한 ‘AI+X’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해 세계 TOP100 수준의 AI 특화대학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대 대학원은 AI융합대학원을 중심으로 ‘AI+X 고도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교육과 연구 기반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단순한 AI 전문인력 배출을 넘어 퍼지컬 AI, 로봇, 첨단 방위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농업, 수소에너지, 인문사회 등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에 AI를 결합할 수 있는 연구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AI융합대학원에는 △퍼지컬·AI융합 공학과 △로봇·미래융합학과 △첨단AI 방위산업 융합학과 △의생명 융합학과 △스마트농업·AI융합학과 △그린수소·연료전지공학과 △인문사회·AI융합학과 등 7개 학과가 운영된다.

이들 학과는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해 교육과 연구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현대자동차 등 지역 산업계,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교육과정 설계와 공동연구에 참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는 각 학과를 통해 석·박사 연구수와 연계한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기반 AI+X PBL(Project-Based Learning)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이 학위 취득 이후에도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와 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주형 고급인재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의 AI 인재 양성 기조에 맞춰 학사부터 박사까지 연계하는 ‘AI+X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기존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통상 8년 이상이 걸렸다면,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학부 3년과 석·박사 통합과정 2.5년을 거쳐 최단 5.5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전북대는 학위 취득 기간 단축에만 머물지 않고,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BK21 등 국가사업과 연계해 기업·연구소 공동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교육과 공동학위 과정도 추진한다.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인재교류, 국제 공동프로젝트도 확대한다. 학생별 연구 단계와 진로를 고려해 학사관리, 장학지원, 연구참여, 국제화 역량 강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계획이다. 전북대는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자동차, 농촌진흥청 등과 퍼지컬 AI·로봇·수소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앞으로 산학연 협력을 AI융합대학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성장엔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재훈기자

전주대, 계명대와 청년 취업지원 강화 방안 논의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일 전주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교류회를 열고, 청년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 대학이 각자의 사업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년고용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윤선영 팀장은 “전주대학교 지역청년고용가버나시 사례를 주제로 지역 공

공기관·유관기관·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과정과 취업 지원 서비스 발굴·연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계명대학교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 송옥현 PM은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청년의 취업 준비 단계와 개인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발표 후 양 대학 실무자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기자